

담비의 노루 사냥 등 설 연휴 맞아 국립공원 야생동물 희귀영상 공개

- 무인관찰카메라로 기록된 국립공원 생태 현장 생생히 펼쳐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의 희귀한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반달가슴곰, 여우, 수달, 산양을 비롯해 II 급인 담비와 삥이 포함됐다. 또한 고라니, 노루, 족제비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행동 모습과 가족 단위 행동 모습도 담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가야산, 경주 일대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관찰카메라를 통해 야생동물의 주·야간 활동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소백산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 장면과 여우의 활동 모습, 노루 두 마리가 뿔을 부딪히며 싸우는 장면이 촬영됐다.

팔공산에서는 담비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고라니의 모습이 포착됐고, 경주와 계룡산에서는 삥 가족이 이동하는 모습과 삥이 오소리를 쫓아가는 장면이 촬영됐다.

또한 경주, 가야산, 계룡산 일대에서는 담비의 여유로운 목욕 모습과 형제 담비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 담비 가족이 함께 뛰노는 모습 등 다양한 행동이 확인됐다. 설악산에서는 수달 가족의 바쁜 이동과 잠든 새끼를 보살피는 어미 산양의 모습이 담겼으며, 무등산에서는 수달 두 마리의 수영과 족제비 대가족의 이동 장면이 관찰됐다.

이번 영상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국립공원의 자연과 야생동물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국립공원 현장에서 무인관찰카메라로 확보한 귀중한 생태 자료”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국립공원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야생동물 무인관찰카메라 포착 관련 사진.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홍보비서실	책임자	실 장	박선규 (033-769-9440)
		담당자	계 장	김태경 (033-769-9442)





설명: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소백산)



설명: 담비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고라니(팔공산)



설명: 샼 가족(경주)



설명: 담비의 여유로운 목욕(경주)



설명: 수달의 바쁜 이동(설악산)



설명: 자고 있는 새끼 산양을 보살피는 어미 산양(설악산)



설명: 오소리를 쫓아가는 삶(경주)



설명: 수컷 노루 두 마리의 결렬한 싸움(소백산)



설명: 족제비 대가족의 이동(무등산)



설명: 새끼랑 놀아 주는 반달가슴곰(지리산)



설명: 여우 가족의 일상(소백산)